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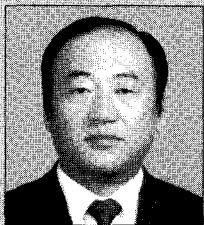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에 즈음하여

오늘날 인류는 컴퓨터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내 인쇄산업 또한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디지털화가 지식정보화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볼 때, 인쇄업체들은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며 무엇보다도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그간 소외되고 차별되어 인쇄문화 산업을 위축시키고 인쇄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출판·인쇄문화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필요한 사항이 법체제로 마련된 것을 인쇄인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새로이 제정된 이 법에서 인쇄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사진, 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복제,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 물적 시설로 정의했으며 인쇄문화산업을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인쇄문화산업 진흥시책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문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인쇄시설의 현대화지원,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 시장확대의 지원, 제책업 등을 지원해야



박 충 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한다고 명문화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인쇄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인쇄문화산업으로 보며 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원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 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쇄인들은 지난 10여 년을 차별되고 소외돼 왔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법을 폐지하고 단독으로 시대에 맞는 인쇄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쇄진흥법 제정대책위원회와 인쇄진흥법 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인쇄진흥법 제정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요로와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건의를 한 바 있다.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인쇄문화산업이 소외되고 차별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심재권 의원 외 27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하여 지난 7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위를 간략하자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16일 심재권 의원 등 32인이

발의, 2001년 11월 17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제1차(2001.11.29)상정, 제2차(2001.11.30)상정, 제4차(2001.12.11)상정, 제5차(2001.12.13) 수정 의결 후 2002년 7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제 동법은 시행령 등을 마련한 후 6개월 후인 2003년 3월을 전후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국내 인쇄문화산업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독일의 쿠텐베르크보다 70여 년 전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 직지를 인쇄하였다. 직지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을 박병선 박사가 1972년 5월 28일 세계 책의해 도서전시회에 출품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30년 후인 지난해 9월 4일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 인쇄 종주국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인쇄종주국으로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문화의 요체인 인쇄문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위정자들 때문에 그 동안 차별받고 소외돼 왔는데 이번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제정으로 다소나마 선조님들께 죄스러움을 면하게 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기반으로 세계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고 민족문화의 요체이자 정보산업의 핵심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겠다. ☞